

# 보성 울포, 남해안 대표 해양레저관광 거점 개발

해양복합센터·엑티비티시설  
인피니티풀·스카이워크 등 조성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  
2024년까지 480억 투입

보성 울포를 남해안 대표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개발한다. 보성군은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시대를 맞아 울포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울포 해양레저 거점 사업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한다. 총사업비 48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포 해변을 계절에 구애 없이 찾을 수 있는 남해안 대표 해변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계획으로는 해양복합센터, 해양엑티비티시

설, 인피니티풀, 스카이워크, 레저 선박 계류장 조성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지난 달 실시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참신한 사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인 울포해수욕장 일원은 득량만에 위치한 곳으로 자연경관이 빼어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울포 종합관광단지(가)가 기본 관광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보성녹차밭 등 인근 관광자원 활용도도 높다. 보성군은 해양 SOC 사업을 추가 유치하고, 동울항·군항 등에서 추진 중인 여촌뉴딜 300 사업과 연계해 사업 시너지를 높일 방침이다. 해수부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울포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은 보성형 블루이코노미의 실현"이라며 "울포해변을 남해안 대표 해변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이 울포 해변을 남해안 대표 해양레저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울포 해양레저 거점사업 조감도.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곡성멜론 6.6t 홍콩 수출 동남아 시장개척 본격화



지난 29일 곡성멜론이 올해 첫 홍콩 수출길에 올랐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은 지난 29일 지역대표 소득작목인 '곡성 멜론'이 올해 첫 홍콩 수출길에 올랐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농업회사법인 곡성멜론과 농산물 수출전문업체 경북통상이 수출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날 곡성멜론 825박스(8kg기준) 6.6t 물량이 수출됐다. 농업회사법인 곡성멜론은 지난해에도 곡성멜론을 홍콩과 대만시장에 수출한 바 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동남아시아 등 해외시장 다변화를 통해 멜론 수출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곡성멜론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의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도 9월 말까지 825박스씩 총 20회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수출 예상 금액은 약 3억8000만원으로 홍콩수출에 따른 국내 가격하락 방지와 생산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곡성멜론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환경의 영향, 섬진강변의 맑은 물과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 덕에 맛과 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 광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속도낸다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국비 3억 지원  
광양시는 '2020 스마트타운 챌린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0년 스마트타운 챌린지 예비사업'을 공모하고 사업계획서와 발표 평가를 거쳤다. 국토부는 '맑은 숨, 편한 쉼 스마트타운 금호 조성'을 제안한 광양시를 비롯해 4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일상생활 속 실험실(리빙랩) 등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최적화된 해결책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 대상 지자체는 기본 계획 수립 비용 3억원과 후속 평가를 거쳐 1년간 2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광양시의 '맑은 숨, 편한 쉼 스마트타운 금호 조성'은 광양만권 내 산업단지 집적화로 대기오염과

교통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는 금호동에 특화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환경 및 교통 문제 해결과 시민 편의 증진 기여를 위해 ▲시민 참여기반의 스마트 에코 플랫폼 구축 ▲공유형 e-모빌리티 ▲스마트 클린 버스정류장 ▲대형폐기물 모바일 수거 시스템 ▲스마트 쓰레기통 구축 등이 포함됐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시민·기업·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스마트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구축 가속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1월 전남 최초로 '스마트 도시 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후 이번 예비사업 선정으로 국비 3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예비사업 과정이 마무리되면 후속평가 결과에 따라 2021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구례 '대한민국 압화대전' 대통령상에 전승희 작가

우수작 189점 선정  
압화박물관에 전시

구례군은 '제19회 대한민국 압화대전'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시상식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수상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지난 29일 한 국압화박물관에서 소규모로 열렸다. 압화(押花)는 꽃이나 잎을 납작하게 눌러서 만든 장식품으로, 올해 9개국에서 465점이 출품됐으며 총 189점이 우수 작품으로 선정됐다. 예년보다 창의성과 기술적 난이도, 꽃들의 배합, 조형미 등에서 독창적인 특징과 미감이 돋보인 작품이 많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상은 시원한 바람으로 행복감을 안겨 주는 부채 같은 선물을 표현한 전승희 작가의 '추억이 주는 선물'이 차지했다. 수상작들은 한국압화박물관에 연중 전시된다. 전종주 압화대전위원장은 "참여한 작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힘든 작업을 통해서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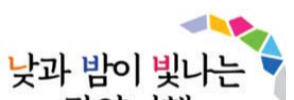
대한민국 압화대전 대상을 수상한 전승희 작 '추억이 주는 선물'.

성된 압화작품의 예술성과 가치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 ...광양시 BI 공개

광양시는 관광 슬로건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을 토대로 BI(브랜드 로고·사진)를 완성, 최근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BI는 이미지 시대에 걸맞은 감각적인 형태와 색채로 텍스트인 슬로건의 한계를 보완해 빛나는 광



양여행의 정체성과 핵심 가치를 두루 담았다. 여행의 궁극적 목적인 자유를 날개 형상으로 상징화하고, 빛을 발하는 보석의 이미지인 각진 도형의 조합은 광양여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가치를 표현했다. 다채로운 컬러는 자연의 모든 빛과 다양한 볼거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광양의 진면목을 다스림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색채디자인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침수피해 잦은 여수 연등천 국비 등 240억 투입 정비

여수시는 침수 피해가 잦은 연등천의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여수시는 국비 120억원을 비롯해 총 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해 22만 규모의 저류지를 설치하고 하수도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여수시는 최근 관련 업체와 연등천 재해 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했다. 내년 11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저류지 설치와 제방 보강 등 연차 사업으로 진행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연등천 재해 예방사업이 완료되면 서시정 주변의 침수를 예방하고 약취 제거, 안전사고 예방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수목장 허가·운영 전문기업

# 수목장 투자 신규 수목장 투자

## 2,000만원부터 투자 가능

### 예상수익

2,000만원 투자로 월 85~105만원 수익 예상  
평생 소득 구축, 30명 한정투자

장례법	비율
수목장	44.2%
납골당	37%
기타	14.8%
산소	4%

장례법	비율
수목장	14%
납골당	74%
기타	12%

자료 : 보건복지부

노후 준비 +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장례준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

## 친환경 장묘문화(주)

전화 070-5172-3090  
H.P 010-8431-5199